

고전 필사본 유랑과 도서관으로의 귀환

The Wandering of Classic Manuscripts and Their Return to the Library

윤 희 윤 (Hee-Yoon Yoon)*

< 목 차 >

I. 서론	III. 고전 필사본의 유랑 및 도서관 보존
II. 고전의 언어 및 필사본 추정	IV. 결론 및 제언

요약: 기록은 인간의 삶과 지식 세계에 대한 수상인 동시에 지문이다. 기록의 대명사로 간주되는 책은 인류 역사를 추적하는 통로이자 그것을 음미하는 창이다. 그리고 책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이고, 압권은 필사본이다. 그것은 파피루스 두루마리, 양피지, 종이 등에 기록한 원본과 그것을 번역·중역한 사본을 총칭한다. 장구한 지식문화사를 반추하면 서양 필사본은 자연적 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 문화반달리즘과 비블리오코스트로 인하여 시공간을 유동하는 강물처럼 이합집산을 계속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고대 그리스에서 중세 르네상스 시대까지 서양 필사본의 유랑과 도서관 보존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왕조와 제국, 군주와 재상, 장군과 정복자, 귀족과 부유층, 성직자와 학자를 불문하고 고전 필사본을 수집하고 번역하는데 혈안이었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석학들이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지식과 지혜를 기록하지 않았으면, 중세 비잔티움 제국·이슬람 제국이 고전을 수집·번역하고 재생산하지 않았으면, 책 사냥꾼들이 고전을 추적하지 않았으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지적 엑스터스를 통해 고전을 복원·재해석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역사도서관이 사력을 다해 고전과 번역본을 수집·보존하지 않았으면, 현대인은 고전 지식을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필사본의 추적은 역사적 유동, 지리적 유랑, 언어적 변용으로 인해 많은 난제와 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아포리아다. 새로운 필사본이 발견·해석되면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므로 후속연구를 통한 고전 필사본의 유랑과 귀환에 대한 추적은 계속되어야 한다.

주제어: 고전 필사본, 필사와 번역, 고대 그리스·로마, 비잔티움 제국, 이슬람 제국, 중세 르네상스, 역사도서관

ABSTRACT: The record is both an palmistry and a fingerprint for human life and world of knowledge. Books, which are synonymous with records, are a channel through which history is traced and a window to savor. And the most primitive form of the book is the classics of ancient Greece and Rome, and the best part is the manuscript. It refers to the original recorded on papyrus, parchment, paper, etc. and the translated and translated copies of them. If we reflect on the long history of knowledge and culture, the classic manuscripts have continued to scatter and collect like a river flowing through time and space due to not only natural disasters, but also artificial cultural vandalism and the bibliocaust. Therefore, this study traced and linked the wandering and library return of classic manuscripts from ancient Greece to the medieval Renaissance period. As a result, dynasties and empires, monarchs and prime ministers, generals and conquerors, nobles and wealthy, clergy and scholars concentrated on collecting and translating classical manuscripts. If the ancient Greek and Roman scholars did not record knowledge and wisdom in papyrus and parchment, the medieval Byzantine and Islamic Empires did not collect, translate and reproduce classics, the book hunters didn't keep track of the classics, the Renaissance humanists did not restore and reinterpret the classics through intellectual exodus, and the historical library did not collect and preserve the classics and their translations, modern people would not have access to classical knowledge. Nevertheless, the tracing of classical manuscripts is an aporia in which many difficulties and contradictions overlap in the tracing of classic manuscripts due to historical flow, geographical wandering, and linguistic transformation. When a new manuscript is discovered and interpreted, correction and supplementation are inevitable, so the pursuit of the wandering and return of the classic manuscripts through follow-up research must be continued.

KEYWORDS: Classic Manuscripts, Transcription and Translation, Ancient Greek and Rome, Byzantine Empire, Islamic Empire, Medieval Renaissance, Historical Library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 논문접수: 2022년 11월 21일 • 최초심사: 2022년 11월 25일 • 게재확정: 2022년 12월 15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1-23,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4.202212.1>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고대 그리스 문명은 에게해 주변에서 발원하였다. 크레타의 미노스 문명(Minoan civilization, BC 3650-1170)과 펠로폰네소스의 미케네 문명(Mycenean civilization, BC 1750-1050)을 기반으로 헬레니즘(Hellenism)을 창출하였고 헤브라이즘(Hebraism)과 결합되어 로마 문명의 모태, 서양 정신문화의 뿌리, 르네상스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 자양분은 그리스 고전을 번역·주석하거나 증역한 필사본이 제공하였다.

그러나 BC 510년 출범한 로마 공화정이 BC 146년 그리스를 속주로 편입시킴에 따라 그리스 헬레니즘은 종식되고 고전 텍스트도 산실되었다. 로마 제국의 군주 및 군인이 그리스 고전을 전리품으로 삼아 왕실도서관과 개인도서관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식자율이 5-10%(Harris, 1989, 272)에 불과하던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 고전은 낯선 존재였다. 이에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후 동로마(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고전을 라틴어로 번역하였고, 이슬람 제국은 시리아어로 번역한 후 아랍어로 증역·전파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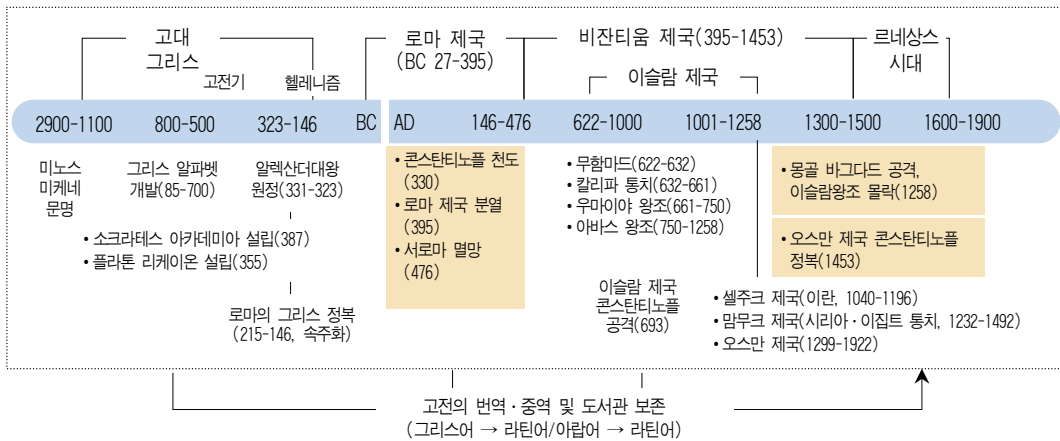
그렇다면 비잔티움 제국이 번역의 저본으로 삼은 고전은 그리스어 필사본, 라틴어 번역본, 아랍어 번역본 중에서 어느 것인가? 이슬람 아바스 왕조가 번역에 사용한 원전은 그리스어 필사본인가? 비잔티움 라틴어 번역본인가? 번역·증역한 주역은 누구며, 어떤 고전을 번역하였는가? 어떤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 고전과 번역본을 수집·보존하였고, 어떻게 전수하였는가?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Absor & Syarif, 2017, 29-48; Buringh & van Zanden, 2009, 409-445; Casson, 2001; Elayyan, 1990, 119-135; Ghazi & Bnini, 2020, 66-80; Koningsveld, 1998, 345-372; Mavroudi, 2015, 28-59; Nedelcu, 2016, 74-92)가 고전 번역 및 도서관을 탐구하였음에도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에는 고전 유량과 도서관 보존을 연계·추적한 연구가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고대 헬레니즘에서 중세 르네상스까지 고전 필사본(classic manuscripts)의 유량과 도서관으로의 귀환을 추적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고전이 어떻게 번역되고 유량하다가 비잔티움 제국을 통해 라틴어로 번역·전파되었으며, 다시 중세 천년을 호령한 이슬람 제국에서 아랍어로 증역·확산하였는지,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는 누가 고전을 사냥과 전파하였는지 등에 대한 우여곡절과 이합집산을 도서관과 연계·추적하고자 한다. 역사는 가정을 불허한다. 그럼에도 비잔티움 제국이 고전을 라틴어로 번역하지 않았으면, 이슬람 제국이 아랍어·라틴어로 증역하지 않았으면, 중세 인문학자들의 필사본 사냥과 지적 엑소더스가 없었으면, 고전을 접할 수 없고 르네상스 개화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제왕·군주·성직자·재력가의 후원과 필사생·학자·사서 등이 역사도서관에 집적·보존하지 않았으면 고전의 유량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II. 고전의 언어 및 필사본 추정

1. 고전의 언어와 매체

고전 필사본은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원전과 그것을 번역·중역한 자료를 총칭한다. 환언하면 그리스에서 르네상스까지 파피루스, 양피지, 종이 등에 기록한 필사본과 번역본을 말한다. 그 시대적 범주는 <그림 1>과 같이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중세 비잔티움·이슬람 제국, 르네상스 시대까지다. 고전에 기술된 언어 및 매체 변용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고전의 시대적 범주와 유량

먼저, 고전기 그리스(BC 1100-146)의 문인, 철학자, 역사가 등은 고대 그리스어(호메로스, 아티케, 이오니아)로 고전¹⁾을 필사하였다. BC 10세기 지중해변 페니키아 상형문자를 축약한 원시 가나안 문자에서 파생된 고대 그리스어는 BC 9세기 그리스 본토에서 사용되었다. 주류 기록매체는 파피루스며, 로마의 속주 이집트에서도 범용되었다.

다음으로 그리스 헬레니즘(BC 323-146) 및 로마 제국(BC 27-AD 395) 시대는 코이네 그리스어(Koine Greek) 또는 헬라어,²⁾ 라틴어로 필사하였다.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는 이집트인, 그리스·로마인, 유대인 석학들이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Mouseion)과 도서관에서 그리스 걸작³⁾을

1) 호메로스의 『일리아스』(Iliad)와 『오디세이아』(Odyssey), 헤시오도스(Hēsiodos)의 『신통기』(Theogonia), 헤로도토스(Herodotus)의 『역사』(Historiae),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Peloponnesian War),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의 희극집, 플라톤(Plato)의 『소크라테스의 변론』(Apology of Socrates),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수사학』(Rhetoric)과 『형이상학』(Metaphysics) 등이 대표적이다.
 2) 고대 아티케 그리스어(Attic Greek)에 이오니아 방언이 추가된 그리스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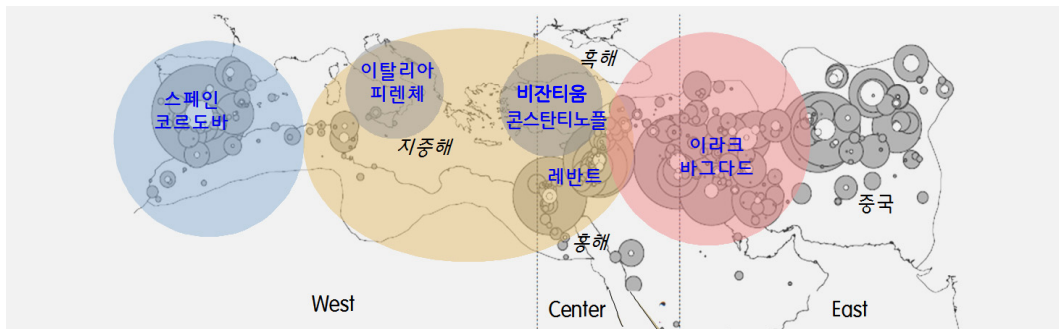
양산하였다. 로마 제국의 경우, 지중해 서쪽(식민지,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스페인 등)은 라틴어가 범용된 반면에 동남쪽 튀르키예, 레반트(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집트 등)는 그리스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그리스어로 필사하거나 콥트어로 번역한 사례가 많았으나, 지배계층 및 지식인은 라틴어로 저술⁴⁾하였다. 그런가 하면 성서의 경우, 레반트 지역에서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히브리어·아랍어·시리아어로 필사한 반면에 로마 기독교회는 신약성서를 그리스어로 필사·번역하였고, 이집트 기독교회는 코텍스로 제작하였다. 100년경 로마의 필사본은 두루마리가 98.5%, 코텍스가 1.5%였으나, 3세기에는 코텍스가 약 17%, 4세기 50%, 5세기 80%, 6세기 90%로 증가하였다(Brown, 2003, 23; Casson, 2001, 127-128).

마지막으로 중세 천년(500-1500) 고전을 수집·번역·필사한 주역은 비잔티움 제국, 이슬람 제국, 르네상스 발상지 이탈리아 등이다. 아프리카 반달족, 스페인 서고트족, 이탈리아 동고트족이 각각 왕국을 건립한 후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던 서로마 제국이 476년 붕괴된 후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까지 그리스어를 변용한 라틴어로 고전을 번역·저술하였다. 그 단초는 서로마 지식인이 그리스 고전을 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동한 엑소더스(exodus)가 제공하였다. 그리스어에 해박한 학자들은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리스 텍스트의 필사와 연구, 라틴어 번역과 출판에 주력하였다. 반면에 성서 및 관련 자료는 가톨릭교회가 라틴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함에 따라 그리스 고전의 보급이 저조하였고, 그리스어에 능통한 성직자도 많지 않았다. 당시 그리스 고전의 라틴어 번역·필사에 사용된 주류매체는 양피지 코텍스였고 채색 필사본이 많았다. 따라서 그리스·로마 고전의 라틴어 번역, 양피지 코텍스 사용, 채색과 장정 등 필사문화는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계속되었다. 이어 중세 서유럽, 아프리카 중남부, 근동·중동 등 3개 대륙을 지배한 이슬람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에 건립한 지혜의 집(Bayt al-Hikmah)을 통해 히브리어·그리스어·라틴어·시리아어·페르시아어 등으로 기술된 고전을 수집하여 아랍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이베리아 톨레도는 1147년 북아프리카 이슬람 알모하드(Almohads) 왕조가 스페인으로 세력을 확장한 후 아랍계 기독교인·유대인의 디아스포라(diaspora)로 인해 다민족·다언어 도시로 바뀌었다. 대주교 레이몬드(Raymond, 1125-1152)가 설립을 주도한 톨레도 번역가 학교에서는 고대 그리스·페르시아·인도·중국의 아랍어 번역본을 라틴어나 카탈루냐어(català)로 중역하였다. 13세기 중반까지 계속

-
- 3) 그리스어 고전은 수학자 유클리드(Euclid)의 『유클리드의 원론』(Euclid's Elements, 전13권), 천문학자·수학자 아리스타르코스(Aristarchus)의 『태양과 달의 크기와 거리에 관하여』(On the Sizes and Distances), 시인·사서 칼리마코스(Callimachus)의 『피나케스』(Pinakes)와 『아이티아』(Aetia), 시인 테오크리토스(Theocritus)의 『목가』(Idylls), 문법학자 아폴로니우스(Apollonius)의 서사시 『아르고 호 이야기』(Argonautica),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Polybius)의 『역사』(Historiai), 철학자 플루타르코스(Plutarch)의 『영웅전』(Greek Lives), 황제 아우렐리우스(Aurelius)의 『명상록』(Meditations), 코텍스 시나이티쿠스(Codex Sinaiticus)가 대표적이다.
- 4) 라틴어 고전은 로마 철학자 겸 정치가 키케로(Cicero)의 『카틸리나 반박문』(In Catilinam), 시성 베르길리우스(Vergilius)의 서사시 『아이네이스』(Aeneis), 시인 호라티우스(Horatius)의 『서정시』(Epode), 오비디우스(Ovidius)의 『변신 이야기』(Metamorphoses),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Seneca)의 수필집 『행복론』(De Vita Beata) 등이 있다.

된 이슬람 번역본의 주류매체는 황금기 창출에 기반인 종이였으며 양피지 코텍스로 보완하였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본향 이탈리아에서는 피렌체와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그리스 고전이 부활한데 이어 로망스어로 번역되었다. 그 동인 중 하나가 비잔티움 제국 쇠락이다. 그리스 지식인은 고대 필사본을 가지고 서유럽, 특히 이탈리아로 엑소더스를 감행하여 그리스 원전을 번역하거나 아랍 번역본에서 중역·필사함으로써 유럽 인문주의 부활 및 르네상스 토대를 제공하였다.

요컨대 사본학, 고문헌학, 파피루스학 측면에서 고전 필사본의 주류매체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였으나, 서로마 및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양피지 두루마리에 이어 코텍스로, 이슬람 제국에서는 종지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중세 제국·주교의 헌장, 법률문서, 전례 텍스트 등 주요 고전은 두루마리에도 필사되었다. 고전의 지리적 거점은 <그림 2>에서 고대 문명 발상지인 이라크와 레반트 지역, 로마 제국과 이탈리아, 서유럽 방파제인 비잔티움 제국, 이베리아반도 스페인이고, 중심 도시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코르도바와 톨레도, 피렌체와 베네치아였다. 고대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필사본은 시대를 달리하며 라틴어, 시리아어, 아랍어 등으로 번역·중역되어 왕실도서관, 제국도서관, 정치인·장군·성직자·학자 등의 개인도서관, 수도원·모스크 도서관에 보존되었다.



<그림 2> 고전 필사본 생산의 지리적 거점(5-15세기)

2. 고전 필사본의 규모 및 생존율

고대에서 중세까지 필사·번역된 고전 필사본의 규모를 추계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전체를 집계한 종합목록이나 서지DB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서양 및 아프리카의 고대 도시나 유적지에서 다양한 매체에 필사된 원전이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⁵⁾

5) 1750-1756년 웨버(C. Weber)가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매장된 헤르쿨라네움(Herculaneum)의 카이사르 장인 피소(L.C. PISO, BC 101-43) 별장에서 발굴한 파피루스 두루마리 1,814점, 1947-1972년 키르베트 쿨란(Khirbet Qumran) 동굴 등에서 발굴된 양피지·파피루스 두루마리 사해문서(Dead Sea Scrolls) 972점, 2008년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 중세도시 팀북투(Timbuktu)에서 발굴된 14-16세기 필사본 2만권 이상 등이 있다.

〈표 1〉 유럽의 국가별 필사본 생산 및 수도원 증감 추이(6-15세기)

구분		6th	7th	8th	9th	10th	11th	12th	13th	14th	15th
필사본	중앙유럽*	0	0	0	0	0	3,983	27,530	120,987	301,833	376,650
	보헤미아(체코)	0	0	0	0	0	657	1,136	5,377	42,066	45,363
	영국	81	1,026	5,474	7,926	9,793	20,360	81,044	200,654	155,513	208,729
	프랑스	1,682	2,441	15,920	74,190	12,752	45,061	197,831	510,828	564,624	1,195,783
	벨기에	0	127	1,111	3,029	1,555	8,529	43,219	119,588	106,148	572,124
	네덜란드	0	26	60	82	58	354	1,731	2,066	13,179	171,974
	독일	0	0	7,503	59,771	45,703	49,548	166,876	270,392	293,814	515,116
	스위스	0	30	594	5,330	1,799	1,090	2,355	3,821	6,349	10,652
	오스트리아	0	0	2,735	9,414	0	2,808	37,370	37,408	39,777	88,623
	이탈리아	10,194	4,478	6,536	20,307	15,215	38,768	95,207	253,013	879,364	1,423,668
	이베리아(스페인)	1,594	2,512	3,770	21,693	48,763	40,871	114,422	237,818	344,284	390,478
	계	13,551	10,640	43,703	201,742	135,638	212,029	768,721	1,761,952	2,746,951	4,999,160
	증감지수	-	-21	311	362	-33	56	263	129	56	82
수도원 수 (증감율, %)	1,193 (-)	2,094 (75.5)	3,168 (51.2)	4,385 (38.4)	6,343 (44.6)	12,485 (96.8)	20,125 (61.2)	21,948 (9.1)	21,270 (-3.1)	20,369 (-4.2)	

*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럼에도 Buringh과 van Zanden(2009, 409-445)은 4개 도서관 목록,⁶⁾ 펜실베이니아대학 쉰베르크 필사본 DB(Schoenberg DataBase of Manuscripts), 히브리 고문자학 프로젝트 DB(SfarData)를 대상으로 유럽의 중세(500-1500) 필사본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총 11개 국가에서 생산된 필사본(초판과 번역·중역된 필사본, 주석을 가미한 버전은 별개로 집계)은 17,352종이며, 시대별 및 국가별로 집계하면 〈표 1〉과 같다. 초기 500-700년은 세기당 12,000권 내외(또는 연간 120권, 연평균 1% 이상)로 생산되다가 8-9세기 급증하였다. 10세기는 바이킹과 마자르인(Magyar)의 유럽 침략으로 감소하였다가 11세기-13세기는 경제적 확장과 수도원 증가(약 3.2배)에 힘입어 급증하였다. 14세기 초반은 1348년 흑사병과 인구 1/3 감소로 다시 주춤하다가 후반에 배증하여 지속되었다. 15세기 중반 인쇄술이 발명되고 종이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초기 인쇄본(1454-1500)인 인큐나블라(incunabula)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중세 전체는 양피지가 종이의 약 2.5배에 달할 정도로 주류매체였다.

그렇다면 모집단 추적이 어려운 그리스·로마의 고전은 제외하더라도 중세 필사본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 대다수 텍스트는 지진과 화재, 고의적 파괴와 침탈로 사라졌다. Ker(1964)가 영국의 중세 수도원도서관(530개) 필사본 총 5,337권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씩 손실되었고, 특히 12세기 필사본은 22%, 13세기는 28%, 14세기는 39%, 15세기는 40% 사라졌다. 최근에는 Kestemont et al.(2022, 765-769)이 특정 지역에서 관측되는 생물의 종류 및 횡수 등을 근거로

6) British Library, Jewish Theological Seminary, Vatican Library, Catálogo Colectivo del Patrimonio Bibliográfico

비관측 종류 및 개체수를 추정하는 생태학 ‘미발견종 모델’(unseen species model)을 차용하여 중세(600-1450) 6개 언어(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아이슬란드어, 아일랜드어, 영어, 독일어)로 필사된 사본 총 3,648권을 추적한 결과, 생존율이 9%(영국 토착어 약 5%, 아이슬란드어 17%, 아일랜드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서정시인 사포(Sappho, BC 630-570)의 작품은 일부만 남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도 약 1/3만 접할 수 있다. 기호학자 에코(U. Eco)의 소설 『장미의 이름』(Il Nome della Rosa)에 등장하는 BC 335년경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eri Ooietikes)⁷⁾ 중 제2권(Comedy)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알렉산드리아 철학자·수학자 하파티아(Hypatia, 355-415)가 주석한 수학자 디오판토스(Diophantus, 3세기)의 『산술』(Arithmetika)은 아랍어로 번역된 마지막 4권이 현전할 뿐이다.

따라서 일부 장서목록과 전문 DB로 추계한 종수나 생존율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잔티움 후신인 튀르키예의 도서관에는 약 25만권(아랍어 16만권, 터키어 7만권, 페르시아어 1.3만권)이 소장되어 있다(Özgül, 2005). 북아프리카, 레반트, 페르시아, 시나이반도, 인도, 중국 등에도 많은 필사본이 남아 있다. 아프리카 말리의 팀북투(Timbuktu) 소재 아메드바바도서관(Ahmed Baba Library)에는 아랍어와 토착어로 기록된 중세 필사본 약 3만권이 보존되어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아프리카 기니와 가나의 북부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약 100만점이 남아 있고, 팀북투에 70만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수메르 도시국가, 시나이 유적지, 이집트 고대 사원과 무덤, 유대인이 책과 문서를 임시 보관한 게니자(genizah) 등에도 남아 있다. 따라서 도처의 필사본을 확인하고 모집단에 추가하여 생산종수, 번역본과 중역본, 생존율을 대비·추적해야 전모를 가늠할 수 있다.

Ⅲ. 고전 필사본의 유량 및 도서관 보존

1. 그리스·로마 고전의 번역과 유량

그리스·로마 고전의 시대구간은 BC 8세기-AD 4세기다. 고졸기는 호메로스어로, 고전기·헬레니즘 시대는 고대 그리스어(아티케, 이오니아, 코이네, 도리아 등)로, 로마 제국에서는 라틴어로 필사된 문학·역사·철학서가 많다.

먼저 그리스 고전기(BC 8-4세기)에 필사된 문학 중 현전하는 최고 서사시는 BC 750년경 유량시인 호메로스가 이오니아 그리스어 등으로 필사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다. 그가 실존 인물

7)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그리스 필사본은 약 700년경 아랍어로, 시리아어 버전은 932년 아랍계 기독교 철학자 আবু 비슈르마타(Abū Bishr Mattā, 870-940)가 아랍어로 번역하였다.

인지, 그의 작품이 맞는지는 논란이 있음에도 그리스 시인 겸 극작가 안드로니쿠스(L. Andronicus, BC 284-204)를 비롯한 여러 학자와 문인이 편집·주석하거나 번역·출판하였다.⁸⁾ 헤로도토스가 이오니아 방언으로 페르시아 전쟁을 기술한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각각 라틴어로 번역·출판되었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⁹⁾은 비잔티움·이슬람 제국에서 라틴어와 아랍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과 『도덕론』은 라틴어,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으로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BC 323-146)는 그리스 문명의 주도권이 로마로 이양된 시기다. 지중해 전역에 전파된 그리스 정신문화는 오리엔탈리즘(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문화, 인도 불교문화 등과 융합되었고, 그 바탕 위에서 형성된 그리스 고전은 알렉산드리아로 집결되었다. 문학은 시칠리아 출신인 테오크리토스의 『목가』와 『에피그램』, 고대 리비아 키레네 출신의 그리스 시인·학자 칼리마코스의 신화집 『아이티아』와 그리스 문헌목록 『피나케스』도 각각 라틴어로 번역·출판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후 피렌체로 이주한 라스카리스(C. Lascaris, 1445-1535)는 아폴로니우스의 현존하는 유일 서사시 『아르고 호 이야기』를 최초로 편집·출판하였다. 역사는 시칠리아 출신 티마이오스(Timaeus, BC 355/350-260)가 로마와 카르타고의 포에니 전쟁을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한 『역사』(Histories, 전38권)와 올림픽 승리자 연대기(Olympionikai)를 저술하였고, 이를 비판한 폴리비오스도 포에니 전쟁을 상술한 『역사』를 저술하였다. 과학은 기하학 아버지로 칭송되는 유클리드가 도리아 방언으로 기술한 『유클리드의 원론』이 라틴어·아랍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특히 아랍어 번역본은 2천년 이상 대학 표준교재로 사용되었다. BC 3세기 아리스타르코스의 『태양과 달의 크기와 거리에 관하여』도 라틴어로 번역·출판되었다.¹⁰⁾ 그러나 수학자 겸 천문학자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BC 287-211/212)의 십진법 도입 등 대다수 원작은 소실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고전문화를 계승한 고대 로마는 BC 3세기 말부터 그리스 문화를 유입하였고, 그리스 헬레니즘은 로마인을 사로잡았다. 로마의 그리스 지배로 헬레니즘 시대가 종료되었음에도 그리스 유산은 로마 문화에 수용되었고, 지도층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함께 구사하면서 번역하였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정통 기독교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비잔티움 사상가들은 그리스 철학 등

8) 문법학자 제노도투스(Zenodotus)와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는 각각 편집·주석하였다. BC 272년 안드로니쿠스는 『오디세이아』를 라틴어로 번역하였는데, 20편 이하만 남아 있다. 1489년 그리스 학자 칼코콘딜레스(D. Chalkokondyles)도 라틴어로 번역하였으며, 네르리우스(B. Nerlius)와 다밀라스(D. Damilas)가 밀라노에서 처음 인쇄하였다. 시인 채프먼(G. Chapman)은 1598년 『일리아드』, 1614년 『오디세이아』를 영어로 완역하였다.
9)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와의 대화』(Socratic dialogues), 『소크라테스의 변명』(The Apology of Socrates), 『향연』(The Symposium),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oetics), 『형이상학』(Metaphysica),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 『분석론 전서』(Prior Analytics), 『난제들』(Problemata) 등이다.
10) 1488년 이탈리아 수학자 발라(G. Valla)가 라틴어로 번역하였고, 1572년 인문주의자 프레데리코(Federico)가 주석을 달았으며, 1688년 영국의 목사 겸 수학자 월리스(J. Wallis, 1616-1703)가 최초 인쇄본을 출판하였다.

이교도 텍스트가 기독교를 지지할 경우에 독서하거나 번역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인류의 철학적 지식, 과학적 논리, 문화적 기호를 창출한 그리스·로마 고전은 어디에 보존하였을까. 고대 민주주의 요람인 그리스의 아테네, 페르가몬 왕국의 성채도시 페르가몬,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알렉산드리아, 제국의 영원한 도시 로마가 거점이었다.

첫째,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BC 335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폴론 신전 부근에 리시움(Lyceum)을 설립한 후 BC 347년 플라톤 장서를 부설도서관으로 이관·보존하였다. 그 후 수차레 유량¹¹⁾을 거둬다가 BC 86년 아테네를 정복한 로마 장군 술라(L.C. Sulla, BC 138-78)가 탈취하여 나폴리 근교 포추올리(Pozzuoli)의 개인도서관으로 옮겼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 프톨레미 2세(Ptolemy II, BC 284-246)가 넬레우스(Neleus, BC 4세기)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장서를 인수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존하였다는 기록도 있다(Harris, 1999, 41).

둘째, 그리스 페르가몬 왕국도 에우메네스 2세(Eumenes II, BC 197-159)가 페르가몬(Pergamon, 현 베르가마 북서쪽)에 왕립도서관을 설립하여 방 8개(대형 홀, 연속된 4개, 소형 3개)에 양피지 및 파피루스 20만-30만점을 보존하였다. 그 후의 행적은 로마 속주 하에서 BC 43년 안토니우스(M. Antonius, BC 83-30)가 클레오파트라 7세(Cleopatra VII, BC 69-30)에게 책을 결혼선물로 넘겨 준 후 방치·멸실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셋째, 이집트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아나톨리아, 레반트 등에서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몰려든 그리스 헬레니즘의 중심지였다. 프톨레미 1세(Ptolemy I, BC 367-282)가 왕궁지구 무세이온 내에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을 계획하였고 프톨레미 2세 때 건립되었다. 수집한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초기 4만권에서 4세기 로마 역사가 마르켈리누스(A. Marcellinus, 330-395)의 70만권, 12세기 비잔티움 시인·문법학자 트제트제스(J. Tzetzes, 1110-1180)의 약 49만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Absor & Syarif, 2017, 37; Wiegand & Davis, 2015, 20). 그러나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Constantinus I, 306-337)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 최후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F. Theodosius I, 379-395)가 국교로 선포함에 따라 알렉산드리아 주교 테오필로(Theophilus, 384-412)가 주도하여 이교도 우상(신상, 신전)을 파괴하였고, 조카이자 후임 주교 키릴(Cyril, 412-444)이 세라피움(Serapeum)을 해체함에 따라 바빌론 역사, 구약성서 원본, 이란 조로아스터교, 그리스·이집트의 걸작이 소실되었다.

넷째, 고대 로마에서 고전을 수집·보존한 주역은 군인, 정치가, 황제, 학자 등이다. BC 100년경 정치가 키케로는 개인도서관을 건립하여 귀족이나 부유층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그리스 고전을 보존하였다. BC 84년 술라도 아리스토텔레스 장서를 전리품으로 삼아 개인도서관을 설립하였다.

11) BC 324년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35년간 리시움 교장을 역임한 제자 테오프라스토스(Theophrastus)가 장서를 관리하였고, 그의 사후 아리스토텔레스 및 자신의 장서와 원고(약 1만점)를 유증한 제자 넬레우스가 두 사부의 특별한 필사본을 고향 스키페시스(Skepsis)로 옮겼다. 이를 다시 상속한 후손들이 정치인 겸 책 수집가 아펠리콘(Apellicon of Teos)에게 팔았고, 그는 아테네에 개인도서관을 설립·보존하였다.

BC 37년 군인 폴리오(G.A. Pollio, BC 75-AD 4)는 아벤티노 언덕의 로마포럼에 인접한 자유신전(Atrium Libertatis)에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필사본을 그리스어실과 라틴어실로 구분·보존하였으며, 이후 대다수 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자료배치에 전범이 되었다. BC 28년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C. Augustus, BC 27-AD 14)는 팔라티노 언덕의 아폴로 신전 내에 두 번째 공공도서관(Bibliotheca Apollinis Palatini)을 건립하였고, 5개 방 가운데 2개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구분하여 보존하였다. 114년 황제 트라얀(Trajan, 98-117)이 트라얀 포럼에 건립하여 장서 2만권을 보존한 율피아도서관(Bibliotheca Ulpia)은 서로마가 몰락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132년에는 황제 하드리아(Hadrian, 117-138)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북쪽에 하드리아안도서관(Hadrian's Library)을 건립하여 파피루스와 문서 등 17,000점 이상을 보존하였으나, 267년 게르만족인 헤룰리안(Herulian)이 파괴하였고, 황제 헤르쿨리우스(Herculius, 408-410)가 재건하였다. 100년에는 집정관 아킬라(G.J. Aquila, 45-120)가 에페수스(Ephesus)의 미트리다테스 게이트 밖에 켈수스 도서관(Celsus Kütüphanesi)을 건립하도록 명령하였고 135년 완공되어 약 12,000점을 보존하였으나, 지진으로 인한 화재 또는 262년 고트족의 파괴로 소실되었다. 1세기 문법학자 마티우스(M. Mettius)는 파피루스 두루마리 3만권을 소장하였고, 3세기 『의학서』(Liber Medicinalis)를 저술한 세레누스(Serenus Sammonicus)는 6만 2천권을 보존하였다. 4세기 로마의 공공도서관은 28개에 달하였다(Bukhsh, 1902, 125). 그러나 378년 군인 겸 역사가 마르켈리누스(A. Marcellinus, 330-395)는 『로마 역사』에서 당시 도서관 사정을 “사람들은 철학자가 아닌 가수, 연설 교사가 아닌 연극 감독자가 있는 학교에 갔다. 도서관은 영원히 폐쇄된 무덤과 같다”고 묘사하였다(Yonge, 1862, 6).

요컨대 그리스·로마의 고전 필사본은 왕조, 군주, 정치가, 군인, 부호를 중심으로 수집·보존하다가 지진, 화재, 전쟁과 약탈 등으로 소실되었다. 특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많은 세속 도서관이 축소·폐쇄되고 자료도 산실되었다. 그럼에도 신전, 수도원, 빌라, 체육관, 목욕탕 등과 여러 속주, 비잔티움, 레반트, 페르시아, 시나이, 아프리카, 이베리아 등에 남아 있던 필사본은 비잔티움·이슬람 제국에 전수되어 라틴어, 아랍어 등으로 번역 또는 중역되었다.

2. 비잔티움 제국의 번역과 전파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래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로마 제국은 고트족·반달족 침략, 기독교 공인 및 세력화, 콘스탄티노플 건설 등의 여파로 395년 동서로 분열되었다. 서로마 제국은 내분과 게르만족 침입으로 476년 멸망한 반면, 동로마(비잔티움) 제국은 천년을 이어갔다.

서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어 지식이 쇠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피루스의 보존력 한계로 고전 텍스트가 급감하고 라틴어 번역본도 많지 않았다. 서로마를 지배한 동고트 왕국의 테오데릭(Theode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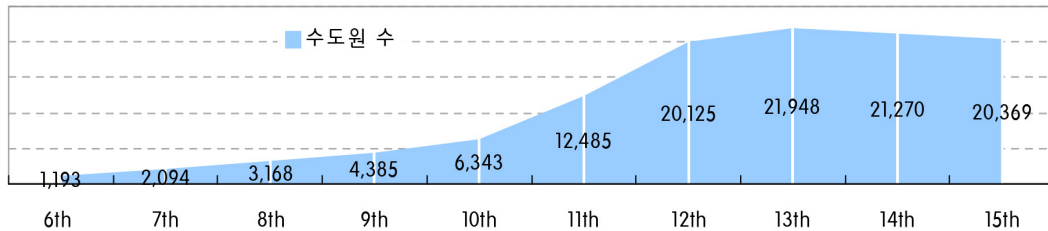
475-526)이 통치할 때 라틴 문법학자 프리스키아누스(Priscianus, 468-562), 철학자 보에티우스(Boethius, 477-524), 학자·정치가 카시오도루스(Cassiodorus, 485-585) 등이 필사와 저술을 계속 하였으나, 530년대 동로마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 I, 527-565)와 게르만족 롬바르드의 연이은 침공으로 로마·라벤나·베로나를 제외한 도시가 폐허로 변하였다. 529년 건립된 베네딕도회 최초인 몬테카시노수도원(Montecassino Abbey)도 570년 파괴되어 필사본이 소실되었다. 다시 수집한 중세 필사본 14,000권은 2차 세계 대전 때 바티칸도서관으로 옮겼다.

반면에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유산을 계승하였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은 410년 플라톤 아카데미를 재건하고 그리스 철학을 연구·전파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후 성서 문자주의로 인해 철학·문학·과학의 저술 및 번역이 침체되었고, 529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F.P.S. Iustinianus, 527-565)는 그리스 철학을 외계과학으로 간주하여 아카데미를 폐쇄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이어 720-787년과 814-843년의 성상파괴운동(iconoclasm)으로 인해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한 여러 지역의 학술기관이 폐쇄되었고 그리스 텍스트도 이단문서로 간주되어 소실되었다. 그럼에도 성서와 전례서, 성직자 주석이 촉발한 그리스 텍스트의 번역·주석과 전파는 계속되었다. 969년-1084년에는 비잔티움의 재정복으로 안티오크(Antioch, 현 앙카라 근처)가 제국에 편입됨에 따라 시리아에서 생산된 법률, 전례 및 교부 문서가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로마 프톨레마이오스(C. Ptolemaeus, 100-170)까지 많은 학자의 번역본은 중세 학문의 전범이 되었다. 당시 번역의 대가 윌리엄(William, 1215-1286)을 비롯한 지식인이 그리스·로마 철학자 등의 걸작을 번역한 덕분이다. 그러나 1204년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유린·파괴하여 제국이 쇠락하자 학자들은 엑소더스를 통해 그리스 필사본, 라틴·아랍 번역본을 서유럽으로 옮겼다.

그렇다면 그리스어 고전을 수집·필사한 주역은 누구며, 어디에 보존하였는가. 325년 로마 제국을 재통일한 콘스탄티누스 1세는 서로마 건축·문화유산을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학문과 문예를 중시하였으며, 라틴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였다. 제국의 전역에 대리인을 파견하여 그리스 필사본을 수집하였으며, 교회에 배치할 경전은 품질과 내구성을 감안하여 양피지 코덱스에 라틴어로 필사하도록 명령하였다. 고전 필사본을 보존한 공간은 제국도서관, 수도원도서관, 개인도서관(황제·주교·학자)으로 대별할 수 있다(Nedelcu, 2016, 77).

첫째, 콘스탄티노플의 제국도서관은 353년 콘스탄티우스 2세(Constantius II, 337-361)가 당시 비잔티움 영토이던 튀르키예 니코메디아 소재의 제국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궁전 내에 설립하였다. 그는 루시아누스(Lucianus)를 수석사서로 임명하여 황제를 위한 도서목록 추천과 고전 수집을 맡겼으며, 당시 장서는 6,900-7,000권 정도였다(Ilie, 2007, 3; Runciman, 1978, 6). 이어 줄리아누스(F.C. Julianus, 361-363) 등 후임들이 공간과 장서를 확충하였고, 372년에는 발렌스(Valens, 364-378)가 사자생 7명(그리스어 4명, 라틴어 3명)을 고용해 필사본을 제작하여 그리스

어와 라틴어로 구분·보존하였다(Casson, 2001, 98). 이러한 열정과 후원은 테오도시우스 2세(Theodosius II, 408-450)까지 약 100년 간 계속되어 450년경 그리스어·라틴어·기독교 필사본이 10만권에 달하였다. 그러나 473년 레오 1세(Leo I, 457-474) 때 화재로 12만권이 소실되었다는 주장(Harris, 1999, 72-75)이 있는가 하면, 477년 장서목록에는 약 12만권(Runciman, 1978, 6)이 수록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1204년 프랑크족과 베네치아인이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하여 제국도서관을 파괴하자 요한 3세(John III, 1222-1254)는 1222년 니케아(Nicaea, 현 이즈니크)로 천도하고 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며, 1261년 미카엘 8세(Michael VIII, 1261-1282)가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한 후에는 궁전 날개에 제국도서관을 재건하고 그리스 필사본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1453년 오스만 술탄 메흐메트 2세(Mehmed II, 1444-1481)의 공격으로 비잔티움 제국은 종말을 맞이하였고, 제국·주교·수도원 등의 도서관장서는 술탄의 궁전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1502년 바예지드 2세(Bayezid II, 1481-1512) 궁전도서관 장서목록에는 총 7,200권(필사본 5,700권 포함)이 수록되어 있었다(Maróth, 2003, 112). 오스만 제국의 비잔티움 필사본은 현재 이스탄불의 쉴레이마니예도서관(Süleymaniye Kütüphanesi), 톱카프 궁전(Topkapi Palace) 박물관도서관, 국립기록보관소 등에 보존되어 있다.



〈그림 3〉 중세 유럽의 수도원 증감 추이(500-1500)

둘째, 중세 유럽의 수도원은 교리습득과 묵상, 교육과 연구, 노동과 독서, 고전 필사와 보존을 겸하는 수행공간이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 수도원 수는 〈그림 3〉에서 6세기 대비 13세기에 18.4배 증가하였다(Buringh & van Zanden, 2009). 대다수는 필사실(scriptorium)을 부설하여 성서를 필사·보존하였다. 4세기 후반 시리아계 수도사 이사악(Saint Isaac, 4세기 초-383)이 콘스탄티노플에 건립한 달마토스 수도원(Dalmatos Monastery)을 시작으로 6세기 중반 30개로 증가하였고, 비잔티움 수도원의 황금기(843-1204)에는 159개로 늘어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 북서쪽 성지인 아토스 산(Mount Athos)에 20개로 구성된 베네딕도 수도원(Benedictine Monastery)과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시나이 산(Mount Sinai)에 건립한 성 캐서린 수도원(Saint Catherine's Monastery)에 548-565년 부설한 도서관인데, 중세 필사본의 약 ¼을 보존하였다(Cartwright,

2019). 전자는 현재도 12,000권을 보존하고 있으며(Wilson, 1967, 66), 후자는 바티칸도서관 다음으로 많은 필사본 약 3,400권을 보존하고 있다. 언어별로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랍어, 라틴어, 아르메니아어, 시리아어, 아랍어, 에티오피아어, 슬라브어, 콥트어 등이 망라되어 있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리스 고전과 서신, 문법, 수사학, 역사, 초기 성서, 교부 저작, 교회음악, 종교시, 세속문학 등 다양하다. 또한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 테오도르(Theodore, 759-826)가 설립한 스튜디오 수도원(Studios Monastery) 부설도서관은 다른 수도원을 능가할 정도로 필사본이 많았으나, 1204년 십자군 원정 때 파괴되었다가 1293년 재건되었다. 그 외에 철학자 겸 책 수집가 성 크리스토들루스(St. Christodulus, 1020-1101)가 그리스 파트모스 코라(Chora)에 건립한 성 요한 수도원(St. John Monastery)은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Alexius I, 1081-1118)가 선물한 도서로 구성되었다. 1201년 장서목록에 수록된 필사본은 330권이며, 대다수가 양피지다. 1170년경 노르망디의 성 바바라 수도원(St. Barbara Monastery) 부원장 갓프리(Godfrey, 1125-1195)는 시토회 수도원(Cistercian Abbey)의 건축 허가를 얻은 수도사 만고트(P. Mangot)에게 쓴 편지에서 “도서관이 없는 회랑(claustrum)은 무기고(armario)가 없는 성과 같다. 우리 도서관은 우리의 무기고다”는 금언을 남겼다(Haskins, 1982, 71). 수도원 필사문화 및 도서관 보존의 중요성을 피력한 모토다. 그럼에도 수도원에서 필사되는 분량이 사자생 1명당 연간 1권(van Zanden, 2013, 323)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수도원도서관의 장서는 다른 국가의 수도원·대학도서관¹²⁾과 마찬가지로 1천권 이하였다. 당시 장서가 600권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수도원도서관이었다(Humphreys, 1989, 5-20). 그러가 하면 그리스어를 사용한 비잔티움 제국을 제외한 서유럽 수도원에서는 라틴어로 필사·번역하였다.

셋째,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황제·주교·수도사·학자 등이 개인도서관을 건립하였다. 테오도시우스 2세는 법률도서관을 만들어 그리스어·라틴어 필사본을 보존하였으며,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로마법 성문화에 기여하였다. 콘스탄티노스 7세(Constantine VII, 912-959), 요한 2세(Johannes II, 1118-1143)도 도서관을 건립하여 필사본을 수집하였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포티오스(Photios, 858-867, 877-886)는 280권, 카이사레아(현 카이세리) 대주교 아레타스(Arethas, 860-939)는 930권, 그리스 수도사 프셀로스(M. Psellos, 1018-1078)와 시인·문법학자 제트제스(J. Tzetzes, 1110-1180)도 각각 200권 정도를 수장한 도서관을 만들었다.

요컨대 비잔티움 제국의 많은 왕조·성직자·학자는 그리스 텍스트를 수집·번역·보존하는

12) 614년 설립된 이탈리아 보비오 수도원(Bobbio Abbey)은 12세기 초까지 필사본 650권을 보존하였다. 841년 스위스 갈렌 수도원(Abbey of St. Gall)은 필사본 약 400권을 수집하였다. 963년 아토스 산의 라브라 수도원(Lavra Monastery)은 960권을, 1088년 파트모스섬 초라(Chora)의 성 요한 수도원(Monastery of Saint John)은 330권을 보유하고 있다. 1132년 설립된 영국의 리브 수도원(Rievaulx Abbey)은 1538년 해산될 때까지 225권을 보존하였다. 반면에 1338년 소르본도서관 장서목록(Parva Libraria)에는 1290년 1,017권, 1338년 1,722권이 수록되어 있고, 1369년에는 2,059권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1424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도서관 장서는 122권에 불과하였다.

데 열중하였다. 그 주역이 그리스계 로마인이고, 거점은 제국 및 수도원의 도서관과 필사실이다. 특히 제국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도서관, 페르가몬도서관, 로마 왕실도서관 등이 지진, 화재, 병화로 소실된 후 서유럽의 많은 제국이 문화적 암흑기일 때 그리스·로마의 지식문화를 복원하고 누적시켰다. 그리고 제국이 요동칠 때마다 비잔티움 지식인은 고대 필사본 및 아랍어 번역본을 가지고 이탈리아 엑소더스를 통해 그리스어 필사본을 라틴어로 번역¹³⁾하였다. 특히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에는 아랍어 번역본을 라틴어로 증역하거나 개작하여 그리스·로마의 철학과 과학을 부활시켰다. 1453년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Diodorus, BC 90-20)의 『역사서』(Bibliotheca Historica, 전40권)가 제국도서관에서 발견되었듯이 현전하는 그리스 고전의 절반 이상은 제국도서관 필사본의 유산이다.

3. 이슬람 제국의 증역과 확산

고전이 부활한 중세의 또 다른 거점은 이슬람 제국이다.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정통 칼리프(Rashidun Caliphate, 632-661) 시대에 이어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 왕조(Umayyad dynasty, 661-750), 이라크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Abbasid Dynasty, 750-1258), 스페인 코르도바의 후우마이야 왕조(Umayyads of Cordova, 756-1031), 이집트 카이로의 파티마 왕조(Fatimid Dynasty, 909-1171)가 주역이다.

먼저 정통 칼리프를 세습한 우마이야 왕조는 이라크 쿠파(Kufa)에서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천도하고 지중해 동쪽의 레반트와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이베리아를 지배하였다. 이슬람교 포용성을 중시한 왕조는 기독교·유대교 학자를 등용하고 그리스·시리아·이집트·페르시아·인도 등에서 고전을 수집하여 아랍어로 번역하였다.¹⁴⁾ 다만, 고전에 기록된 그리스어·콥트어·라틴어는 셈어¹⁵⁾가 아닌 인도-유럽어이기 때문에 시리아어로 번역한 후 아랍어로 재번역한 경우가 많았다.

13) 그리스 학자 크리솔로라스(M. Chrysoloras)는 호메로스·플라톤 저작의 일부,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의 베로나(Verona)는 스타라보(Strabo)와 플루타르크(Plutarch), 포지오(Poggio)는 크세노폰(Xenophon)·디오도로스(Diodorus)·루시안(Lucian), 필렐포(F. Filelfo)는 제노폰(Xenophon)·라시아스(Lysias) 저작의 일부, 발라(L. Valla)는 투키디데스와 헤로도토스, 피치노(M. Ficino)와 그의 제자들은 플라톤, 폴리치아노(Poliziano)는 헤로디아서·에픽테토스·플루타르코스의 일부, 독일 수학자·천문학자 레기오몬타누스(Regiomontanus)와 비잔티움 그리스 철학자 조지(George)는 각각 『알마게스트』(Almageste)를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14) 이븐 야지드(Khalid ibn Yazid)는 그리스어 및 콥트어로 기술된 연금술·의학·천문학을 아랍어로 번역하도록 명령하였다. 시리아어 문법학자 겸 주교 야콥(Jacob)도 많은 그리스 고전을 아랍어로 번역하였고, 특히 페르시아계 철학자 알 무카파(Ibn Al-Muqafa)는 인도 기원의 동물 우화집 『칼릴라와 딤나』(Kalila wa Dimna)을 번역하였다.

15) 서아시아, 북동아프리카에서 사용된 셈어(Semitic language)는 동셈어(에블라어, 수메르어, 아카드어)와 서셈어(가나안어, 아랍어와 시리아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아랍어 등)로 나눌 수 있다. 고대 그리스어(헬라어, 한자 음역의 희랍어)와 라틴어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며, 그리스어에서 콥트어, 라틴어에서 로망스어가 파생되었다.

수집·번역된 고전은 무아위야 1세(Muawiyah I, 661-680)가 아랍 최초로 설립한 개인도서관에 보존하였고 후임들이 확충하였으며, 모스크 부설도서관에도 보존하였다.

다음으로 750년 우마이야 왕조를 와해시킨 아바스 왕조는 762년 바그다드로 천도한 2대 알만수르(Al-Mansour, 754-775)를 비롯한 칼리프들이 통치하면서 다종교(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및 다민족(아랍인, 그리스인, 페르시아인, 시리아인, 수메르인, 인도인) 동화정책과 공통어인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를 기반으로 이슬람 황금시대(750-1258)를 창출하였다. 그 토대가 지식(ilm) 추구를 강조한 쿠란(Quran, 이슬람 경전)과 하디스(Hadith, 무함마드 언행록)¹⁶⁾라면, 동력은 학습과 관용이고, 거점은 지혜의 집이며, 주역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남긴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신성하다'는 경구를 실천한 아랍 및 이민족 학자들이다. 그들은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에서 고전을 수집·번역하였다. 왕조가 통치전략 차원에서 추진한 번역운동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Ghazi & Bnini, 2020, 68). 첫째는 2대 알만수르에서 6대 알아민(Al-Amin, 809-813)까지다. 알만수르는 아리스토텔레스 저작,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¹⁷⁾ 『유클리드의 원소』 등 고전 수집과 번역을 적극 후원하였다. 3대 알마흐디(Al-Mahdi, 775-785)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 저작 『토피카』(Topica)의 번역을 직접 감독하였다. 둘째는 7대 알마문(Al-Ma'mun, 813-833)에서 9대 알와티크(Al-Wathiq, 842-847) 때까지다. 특히 시인이자 학자였던 알마문은 번역실·천문대·대학·도서관을 갖춘 지혜의 집¹⁸⁾을 건립하고 당시 독보적 번역가 이븐 이스하크(Hunayn ibn Ishaq, 808-873) 책임하에 이집트, 콘스탄티노플, 시리아, 레바논 등의 도서관에 요청하여 그리스 저작을 수집한 후 아랍인 및 이민족 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번역을 장려하였다. 이븐 이스하크가 시리아어로 번역한 그리스 고전은 아랍어로 중역되었다. 그리스 철학(아리스토텔레스), 수학(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천문학(프톨레마이오스), 의학(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등을 번역한데 이어 지리, 문학, 음악으로 확대하였다. 셋째는 10대 알무타와킬(Al-Mutawakkil, 847-861)에서 왕조가 무너진 1258년까지다. 왕조의 후원으로 계속된 고전 번역은 특히 쿠란과 하디스의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였다. 저본은 콘스탄티노플, 근동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도시, 페르시아 지식 거점, 서인도 지적·교육적 센터의 필사본이 대다수였다. 그 가운데 일부 지역은 그리스어 필사본과 다른 언어

16) 쿠란에는 지식이 78번 이상 언급되어 있고, 하디스(218장)는 지식탐구를 무슬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7) 151년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리스어로 기술한 『Mathēmatikē Syntaxis, 전13권』은 827년 아랍어로 번역되었으나, 주인공은 미상이다. 이어 바그다드의 이븐 꾸라가 『al-Kitab-al-Midjisti』로 번역하였는데, 파생된 범용어가 『알마게스트』다. 후에 이탈리아 제라드(Gerard, 1114-1187)와 모에르베케(Moerbeke, 1215-1286)가 라틴어로 번역하였고, 1515년 베니스에서 리히텐슈타인(P. Lichtenstein, 1497-1528)이 라틴어 버전(152쪽)을 인쇄하였다.

18) 아바스 왕조의 지혜의 집은 지혜의 궁전(Palace of Wisdom: Dar Al-Hikmah), 지혜의 보물(Treasury of Wisdom: Khizanat al-Hikmah)로, 코르도바 및 파티마 왕조의 지식의 집(Dar al-Ilm: House of Knowledge)은 과학의 집(House of Science), 학습의 집(House of Learning)으로 혼칭되었다. 도서관, 학습센터, 대학, 번역실을 포괄한다.

(특히 시리아어, 팔라비어)로 번역된 그리스어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시리아어는 그리스어와 아랍어를 매개하는 언어로 사용되었으며, 팔라비어로 번역된 인도 자료는 다시 아랍어로 중역되거나 산스크리트어에서 선택적으로 조합되었다. 11세기 바그다드에는 서적이 약 100개, 도서관이 36개 있었다(Bashiruddin, 1967, 154). 그러나 1258년 훌라구 칸(Hulagu Khan) 군대가 바그다드를 침공하여 도시를 파괴하고, 왕족과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으며, 지혜의 집에 보존된 필사본을 티그리스강에 버림으로써 중세 천년을 호령한 왕조는 멸절(滅絶)되고 제국도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이베리아로 망명한 우마이아의 알 라흐만 1세(al-Rahman I, 756-788)는 안달루시아¹⁹⁾ 코르도바에 왕조를 건국한 후 알 라흐만 2세(al-Rahman II, 822-852), 알 라흐만 3세(al-Rahman III, 929-961), 알 하캄 2세(Al-Hakam II, 961-976) 때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거점인 코르도바는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고 종이를 최초로 생산하였다. 동서양의 기독교도·유대인·무슬림 등 지식인이 활동한 지식문화 중심이었다. 특히 936년 알 라흐만 3세는 코르도바 서쪽에 궁전도시 메디나 아자하라(Medina Azahara)를 건설하였고, 알 하캄 2세는 인근에 지식의 집(Dar al-Ilm)을 건립하여 바그다드에서의 번역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리아의 메카·메디나·다마스쿠스, 이라크의 바그다드·쿠파·바스라, 콘스탄티노플, 페르시아 시라즈, 스페인 코르도바·톨레도, 이집트 카이로 등에서 많은 고전을 수집하고 저명한 학자 및 번역가를 초빙하여 그리스 철학·과학을 시리아어,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 아랍어로 번역하였다. 당시 유럽 도서관의 장서가 수백 권에 불과할 때 지식의 집은 40만권을 보유하면서 다인종·다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1009년 크로아티아 왕국의 슬라보니아인과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인의 침략에 이어 1031년 내분으로 왕조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전성기를 견인한 관용과 공존이 위협을 받자 다언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톨레도로 이주하는 엑소더스가 일어났다. 1085년 대주교 레이몬드스 대성당에 톨레도 번역가 학교를 설립하여 아랍어 철학·종교서의 라틴어 번역을 촉진하였다. 아랍학 관련 87권 이상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탈리아의 제라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사라고사(Zaragoza), 세고비아(Segovia), 타라소나(Tarasona), 팜플로나(Pamplona), 나바라(Navarra), 바르셀로나 등에도 번역센터가 설치되어 서유럽의 문화적 용광로가 되었다. 아랍인, 페르시아인, 유대인, 기독교인과 모자라브(Mozarab),²⁰⁾ 베르베르인, 튀르키예인 등이 그리스 고전을 아랍어·페르시아어로 번역하고, 아랍 번역본을 라틴어로 중역하였다. 동서양 고전문학의 교류를 상징하는 「천일야화」²¹⁾의 다양한 버전이 방증한다.

19) 로마 영토였으나 5-8세기 서고트족이 침입하여 가톨릭 국가로, 711년 무슬림이 침공하여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다.

20) 우마이아 칼리프가 5-8세기 프랑스 남서부 및 이베리아반도의 서고트 왕국(Visigothic Kingdom)을 정복한 후 이슬람 통치 하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을 포함한 이베리아 기독교인을 말한다.

21) 그 기원은 3세기 인도 산스크리트어 설화집 「판차탄트라」(Panchatantra)다. 570년 수도사 보르주야(Borzūya, 5-6세기)가 시리아어 「칼릴라그와 딘나그」(Kalilag and Dimlag)로, 6세기 페르시아어 「하자르 아프사네」(Hazār Afsān)로, 750년 페르시아계 작가 알 무카파(Ibn al-Muqaffa, 724-759)가 「칼릴라와 딘나그」를 아랍어로 재번역·개작하였다. 1253년 스페인어 「센데바르」(Sendebār)로, 1704-1715년에는 갈랑(Antoin Gallan)이 프랑스어

총 35명(톨레도 번역가 학교 대표 26명, 사라고사 3명, 바르셀로나 2명, 세고비아 및 나바라 2명)이 번역한 자료는 122권, 대상 저자는 47명(고대 과학자 10명, 중세 과학자 37명), 주제는 정밀과학 57건, 자연과학 33편, 인문학 32편이었다(Makhmudov, 2017, 6). 12-13세기 톨레도 학자들²²⁾은 아바스 왕조가 번역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아랍어 버전을 라틴어로 중역·주석하였고, 중세 성기에는 십자군이 정복한 안달루시아, 시칠리아, 레반트를 통해 그리스어·아랍어 텍스트의 라틴어 번역본²³⁾이 유럽에 전파되었다. 아랍계 철학자·의학자 아베로스가 번역·주석한 그리스 철학서는 유럽 철학 및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가 역설한 ‘무지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폭력을 낳는다’는 경구(Lerner, 1974, 16)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스페인계 프랑스 의사·번역가 이븐 티본(Judah Ibn Tibbon, 1120-1190)은 아들에게 “히브리어 책은 매일, 아랍어 책은 격월로 검사하고 습기, 책벌레, 손상으로부터 책장을 보호하라, 그들은 너의 보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유언할 정도로 필사본을 중시하였다(Pearce, 2007, 44-67). 그런가 하면 카스티야 왕국의 알폰소 10세(Alfonso X, 1252-1284)는 로망스어 번역원을 설립하여 아랍어 버전을 라틴 구어체에서 파생된 카스티야어(Castellano)로 번역하도록 장려하여 스페인어 확산에 토대를 마련하였고, 유럽 전역에 지식문화를 전파하고 대학에 지적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10세기까지 코르도바에는 모스크 700개, 궁전 6만개, 도서관 70개(Longworth & Osborne, 2010, 368)가 있었으나 후계자들에 의해 파괴·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는 약 200년(10-12세기) 동안 북아프리카, 시리아, 레반트, 아라비아를 통치하였다. 909년 이스마일파의 알 마흐디(al-Mahdi, 909-934)가 왕조를 건국하고 920년 튀니지 마흐디아(Mahdiyyah)를 수도로 삼았으며, 알 카임(al-Qā'im, 934-946), 알 만수르(al-Manşūr, 946-953), 알 무이즈(al-Mu'izz, 953-975)로 계승되었다. 969년 알 무이즈 군대는 나일강 유역을 정복한 후 카이로를 수도로 정하고 대학·도서관 기능을 겸한 모스크(Al Azhar)를 건립하였으며, 988년 후계자이자 애서가 알 아지즈(Al Aziz, 975-996)는 모스크 내에 학교 및 또 다른 칼리프도서관(Khazain al Qusoor)을 조성하였다. 이어 1004년 알 하킴(al-Hakim, 996-1021)은 선대의 칼리프도서관을 모체로 궁전 내에 학습센터 겸 왕실도서관인 지식의 집(Dar al Ilm 또는

『천일야화』(Les Mille et Une Nuit, 전12권)로 번역하였고, 1885-1888년 버튼(R.F. Burton)은 영어로 번역한 『천일야화』(The Thousand and a Nights, 전10권)를 출판하였다. 현재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200종 이상이 존재한다.

22) 1175년 톨레도에서 활약한 제라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리스어로 저술한 『Mathēmatikē Syntaxis, 전13권』의 아랍어 버전을 처음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스페인 탈무드 학자·시인·정치가 이븐 나그릴라(ibn Naghrillah, 993-1056)는 시작품 『시편의 아들』(Ben Tehillim), 『전도서의 아들』(Ben Qoheleth), 『잠언의 아들』(Ben Mishlei) 등을 저술하였다. 아랍계 철학자·의학자 아베로스(Averroes)가 번역·주석한 그리스 철학서는 유럽 철학, 신학,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 철학자·신학자·의사·천문학자 이븐 토파일(Ibn Tofail), 식물학자·의사 이븐 알 바이타르(Ibn Al-Baitar)가 있다.

23) 아랍어에서 라틴어로의 번역은 플라톤(Plato Tiburtinus)의 그리스 천문도구인 아스트롤라베로(Astrolabe), 영국계 아랍학자 로버트(Robert)의 『연금술 구성서』(The Book of the Composition of Alchemy) 등이 있다.

Dar al-Hikmah)을 설립하고, 부친 알 이지즈 도서관의 장서를 이관한데 이어 시리아,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등에 대리인을 보내 고전을 수집하였다. 바그다드 지혜의 집이 그리스 고전의 아랍어 번역실 및 도서관에 가까웠다면, 카이로 지식의 집은 대학인 동시에 고전을 번역·보존하는 도서관이었다. 지식의 집에서는 쿠란과 하디스, 논리학, 의학, 수학 등을 교육하였고, 번역부서를 설치하여 고전을 아랍어로 번역하였다. 대표적인 번역가로는 『도서목록』(Kitāb al-Fihrist)을 편집한 교육자 이븐 나딤(Ibn Nadim, 932-995), 수학자·천문학자·물리학자 알 하이삼(Ibn al-Haytham, 965-1040)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슬람 제국이 수집·번역한 고전은 어디에 보존하였는가. 우마이야 왕조는 무아위야 1세가 건립한 도서관과 모스크에 보존하였다. 아바스 왕조가 건립한 지혜의 집은 장서가 40-50만권(Absor & Syarif, 2017, 40)에 달하였으나 1258년 몽골 훌라구 칸이 바그다드를 침공하여 파괴하였다. 코르도바 왕조의 알 하캄 2세는 장서 40만권(목록 44권 분량)과 직원 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지식의 집을 운영하였다. 수학자이자 궁전 비서 루브나(Lubna)가 관장직을 수행하면서 필사, 번역을 주관하였다. 파티마 왕조는 카이로 궁전의 칼리프도서관에 장서 약 20만권과 목록을 40개 방에 주제별로 배치하였으며, 특히 금과 은으로 기록된 쿠란 2,400여권은 별치하였다. 알 하킴이 걸립한 지식의 집은 장서 100만권을 40개 이상으로 구성된 각 방에 25,000권씩 보존하였다(Aziz & Mohadi, 2018, 3). 그의 사후 재상 알 자르자라이(al-Jarjara'i)가 유지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관료와 군인이 조직적으로 약탈하였고 1068년 칼리프 궁정의 과학서 18,000권과 채색 쿠란 2,400권이 무단 반출되었다(Robinson, 2003, 31). 이어 8대 알 무스탄시르(al-Mustansir, 1036-1094) 때 해체되었다. 그리고 아이유브 왕조(Ayyubid Dynasty)를 창시한 이집트·시리아의 최초 술탄 살라딘(Saladin, 1174-1193)이 파티마 왕조를 접수하고 장서와 보물을 매각함으로써 지식의 집은 종지부를 찍었다(윤희윤, 2019, 13).

요컨대 서로마 멸망 후 레반트 등을 유랑하던 그리스·로마 고전은 비잔티움을 경유하여 이슬람 왕조가 건립한 지혜(또는 지식)의 집으로 귀환하였다. 지식은 무슬림의 삶이자 이슬람의 기둥이었고, 무지의 안티테제(anti-thesis)였다. 그 실천의 요체인 번역운동은 칼리프와 다국적 학자에게 지적 부활의 추동력으로 작동하였다. 바그다드와 카이로에서는 그리스·라틴어 고전을 아랍어로, 코르도바와 톨레도 등에서는 아랍어 저작과 그리스어 번역본을 다시 라틴어로 중역하였다. 그리고 아랍어와 라틴어로 번역·중역된 필사본은 서유럽에 전파되어 용어 정립²⁴⁾ 및 르네상스 마중물이 되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에 뿌리를 둔 중세 지식문화는 이슬람·비잔티움 제국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부활시키는 주역이었다.

24) 아랍어 칼리(Kali, 식물 재)에서 유래된 알칼리(Alkali), Al-Kohl(가루상태)이 어원인 알코올(Alkohol), Al-Chemia(연금술)에서 변용한 화학(Chemistry), 대수학자 알 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차용한 알고리즘(Algorism)과 그가 창조한 알제브라(Algebra, 대수학)가 방증한다.

4.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 사냥과 전파

인류 역사를 반추하면 중국 속담인 ‘합구즉분(合久則分)과 분구합즉(分久則合)’이 방증하듯이 불멸의 왕조와 제국은 없다. 알렉산드리아 헬레니즘, 로마, 비잔티움, 이슬람, 오스만 등의 흥망 성쇠가 대변한다.

그 가운데 6세기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이베리아반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비잔티움 제국은 끝없는 외침²⁵⁾에 시달렸다. 특히 1204년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유린·파괴함에 따라 그리스계 비잔티움 학자들의 1차 엑소더스가 시작되었고 그리스 필사본, 라틴·아랍 번역본이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베네치아·시칠리아·피렌체 등으로 옮겨졌다. 베네치아는 수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와 교류하면서 그리스 고전을 기독교 및 이슬람 세계에 전달하거나 역수입하여 번역하는 거점이었다. 12세기 이슬람 지배하의 시칠리아에서는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스어, 라틴어가 공식 언어로 통용되었으며 수도 팔레르모(Palermo)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거점이었다. 윌리엄 1세(William I, 1154-1166)가 설립한 시칠리아 번역가 학교에서는 주요 인물들²⁶⁾이 그리스어·아랍어 고전을 라틴어로 번역·보존하였으나, 그 분량과 수준은 코르도바에 미치지 못하였다. 14세기 전반에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력이 강한 인문주의자들이 서유럽 전역의 수도원도서관을 여행하며 책 사냥을 통해 필사본을 수집·번역하여 많은 고전을 복원하였다.

그러나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심장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시점을 전후로 인문학자들이 그리스어 원전 및 번역본을 가지고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로 향하는 2차 엑소더스를 통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선도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비잔티움에서 피렌체로 이주하여 플라톤 사상을 소개하고 그리스어 학습을 진작시킨 플레토(G. Pletho, 1355-1452)다. 그는 피렌체 통치자 겸 문예후원자 코시모(Cosimo de Medici, 1389-1464)와 만나 플라톤 아카데미(Academia Platonica)를 설립하였고, 학자 겸 번역가 피치노(M. Ficino) 주도하에 플라톤의 모든 저작, 그리스 후기 철학자 플로티노스(Plotinus, 205-270)의 『엔네아데스』(Enneads), 신플라톤학과 저작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시칠리아 출신의 역사가 겸 도서수집가 아우리스파(G. Aurispa, 1376-1459)는 두 차례(1413-1414, 1421-1423)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여 그리스 필사본 238권을 수집하여 베네치아로 갔다(Hallam, 1839, 77). 그의 코텍스 필사본 운송비(금화 50 플로린)는 신학자·인문주의자 트라베르사리(A. Traversari, 1386-1439)의 주선으로 피렌체 실세 겸 문예후원자 로렌초

25) 7세기 이슬람 침입과 슬라브족 등의 압박, 1071년 셀주크 제국과의 전쟁, 1204년 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약탈,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등이다.

26) 영국 철학자 아델라드(Adelard)는 현존 최고 아랍어판 『유클리드 요소』(Euclid's Elements)를 라틴어로, 대주교 아리스티푸스(H. Aristippus)는 플라톤 『파이돈』(Phaedo) 등을, 재상 에우제니우스(Eugenio)는 12세기 아랍어 필사본 『프톨레마이오스 광학』(Ptolemy's Optics)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Lorenzo de Medici, 1469-1492)가 대출해 주었다. 초기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포지오(Poggio Bracciolini, 1380-1459)도 서유럽 수도원도서관에서 잠자던 많은 라틴어 필사본을 발굴·복구하였다. 그는 피렌체 인문주의자 니콜리(N. Nicoli, 1364-1437), 브루니(L. Bruni, 1370-1444), 베로네세(G. Veronese, 1374-1460), 메디치가의 코시모·로렌초 등 군주들과 그리스·로마의 필사본 및 예술품을 발굴·수집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그리스 인문주의자 겸 주교 베사리온(Bessarion, 1403-1472)은 1468년 고대 그리스·로마의 필사본 746권(그리스어 482권, 라틴어 264권)을 베네치아 공화국에 기증하여 산마르코 소재 마르차나도서관(Biblioteca Marciana) 장서구성의 초석이 되었다. 1427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필렐포(F. Filelfo, 1398-1481)는 7년간(1420-1427) 콘스탄티노플에서 수집한 많은 그리스 필사본을 피렌체로 가져갔다. 로마는 1475년 교황 식스토 14세(Sixtus IV, 1471-1484)가 설립한 바티칸도서관과 교황청의 강력한 후원 덕분에 필사본 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한편, 양모업 중산층 출신의 피렌체 호고주의자 니콜리는 고서·동전·메달 등을 수집하는데 재산을 탕진하자 코시모가 은행지점에 니콜리 어음이 돌아오면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파산을 막았다. 1433년 고전을 수집하기 위해 코시모와 로렌초로부터 355 플로린을 빌린 니콜리는 1437년 죽음을 앞두고 코시모에게 피렌체 최대 개인장서의 처리를 유언하였고, 1441년 4월 6일 코시모 요청에 따라 유언 집행자들은 건립 예정이던 대성당 도서관에 편입시키는데 동의하였으며, 니콜리 장서 400권 이상(1100년 이전의 그리스어 필사본 102권, 12세기 라틴어 사본 102권, 기타 중세 자료)은 1444년 건립된 산마르코 대성당 도서관에 배치되었다가 1571년 개관한 라우렌치아나도서관(Biblioteca Medicea Laurenziana의 전신)으로 이관되었다. 비잔티움이 멸망한 후 16세기에 그리스 이민자, 라틴 인문주의자, 성직자, 애서가 등의 노력으로 바젤의 도미니칸도서관(Dominican Library), 피렌체의 라우렌치아나도서관, 베네치아의 마르차나도서관, 로마의 바티칸도서관 등이 그리스 필사본 수집에 주력하였으며, 기타 역사도서관에도 많이 남아 있다.

요컨대 비잔티움 제국의 부침과 함께 유랑을 거듭하던 그리스·로마의 고전과 라틴어·아랍어 번역본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로 전파되어 피렌체 르네상스의 초석이 되었다. 이집트·그리스·시리아·페르시아·아랍 출신의 중세 인문주의자들은 집요한 책 사냥을 통해 필사본을 수집하여 고대 지식문화를 서유럽에 전파하였다. 그리고 왕실, 주교, 학자, 부유층 등의 역사도서관에 보존된 필사본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마중물이었다. 그럼에도 지중해 서쪽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동쪽의 비잔티움과 레반트에서 수집·번역된 고전의 경계와 순서는 모호하다. 그리스 텍스트를 기반으로 라틴어·아랍어 번역본이 제작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 텍스트를 아랍어로 번역한 후 라틴어 버전으로 중역한 사례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제언

기록은 삶과 지식에 대한 수상(手相)인 동시에 지문(指紋)이다. 매체가 수상을 대변한다면, 문장과 문자는 지문이다. 그리고 기록의 대명사인 책은 역사를 추적하는 통로이자 음미하는 창이다. 그것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이며, 압권은 필사본이다.

고대에서 중세까지 고전 필사본을 추적한 결과, 왕조와 제국, 군주와 재상, 장군과 정복자, 귀족과 부유층, 성직자와 학자를 불문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군집하는데 혈안이였다. 그들의 원초적 욕망은 정복활동과 전리품 탈취, 특사 파견을 통한 집요한 발굴과 수집, 품위유지 및 재력과시를 위한 수집·보존, 성직수행 및 교리습득을 위한 필사·제작, 고전복원 및 지식탐구를 위한 책 사냥과 번역·주석, 다민족 동화정책 차원의 중역과 재해석 등 다양한 행태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왕조와 시대를 달리하며 왕실도서관, 궁전(제국)도서관, 수도원도서관, 지혜(지식)의 집, 군주·주교·학자의 개인도서관 등에 보존되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기록의 수상과 지문이 퇴색되듯이 고전 필사본도 지진과 홍수 등 자연적 재해와 전쟁과 파괴, 화재와 분서, 탈취와 이관, 유출과 매각 등 인위적 문화반달리즘과 비블리오크스트로 인해 시공간을 유동하는 강물처럼 이합집산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사가 방증하듯이 고전을 완전하게 보존하거나 온전하게 전수한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고대 그리스·로마의 석학들이 파피루스 두루마리와 양피지 코텍스에 신화와 전설, 지식과 지혜를 기록하지 않았으면, 중세 수도원·비잔티움 제국·이슬람 제국이 고전을 수집·번역하고 재생산하지 않았으면, 책 사냥꾼들이 유량하던 고전을 추적하지 않았으면, 고전을 품에 안고 엑소더스를 단행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복원·재해석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무수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역사도서관이 사력을 다해 수집·보존하지 않았으면, 현재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고전 지식의 향기에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고대에서 중세 천년까지의 장구한 지식문화사를 관통하면 고전 필사본에는 종적 감추기와 발견, 매몰과 발굴, 수집과 필사, 번역과 중역, 금서와 파괴, 해체와 화형, 복원과 보존, 이관과 산실(散失) 등 우여곡절과 이합집산이 혼재되어 있다. 그것의 유량과 귀환을 추적하는 과정은 시간적 유동, 지리적 유량, 언어적 변용으로 인한 난제와 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아포리아(aporia)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원전으로 향하는 구심력과 중세 근동, 레반트, 서유럽에 전파된 번역본을 추적하는 원심력을 동시에 조합해야 하는 고난도 퍼즐 맞추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운 원전이 발견·해석되면 수정과 보완도 불가피하다. 해서 고전 필사본의 유량과 귀환에 대한 추적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 Absor, U. & Syarif, V. D. P. (2017). The existence of Islamic libraries in the classical century in Eastern and Western states &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era of Islamic civilizatio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1), 29-48.
- Bashiruddin, S. (1967). The fate of sectarian libraries in Medieval Islam. *Libri*, 17, 149-162.
- Brown, P. (2003). *The Rise of Western Christendom*. Oxford: Blackwell.
- Bukhsh, S. K. (1902). The Islamic libraries. *The Nineteenth Century and After*, 52, 125-139.
- Buringh, E. & van Zanden, J. L. (2009). Charting the “rise of the west”: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in Europe, a long-term perspective from the sixth through eighteenth centurie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9(2), 409-445.
- Cartwright, M. (2019). Libraries in the ancient. Available:
<https://www.worldhistory.org/article/1428/libraries-in-the-ancient-world/>
- Casson, L. (2001).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Elayyan, R. M. (1990). The history of the Arabic-Islamic libraries: 7th to 14th centurie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22(2), 119-135.
- Ghazi, O. E. & Bnini, C. (2020). Arabic translation from Bait Al-Hikma to Toledo School of Transl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Linguistics, Literature and Translation*, 3(9), 66-80.
- Hallam, H. (1839).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Europe in the Fifteenth,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Vol.1*. Paris: Baudry's European Library.
- Harris, M. V. (1999).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4th ed.)*. Lanham, MD.: Scarecrow Press.
- Harris, W. V. (1989). *Ancient Lite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skins, C. H. (1982). *The Renaissance of the Twelfth Centu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umphreys, K. W. (1989). The effects of thirteenth-century cultural changes on libraries. *Libraries & Culture*, 24(1), 5-20.
- Ilie, B. J. (2007). *Libraries and Book Culture of the Byzantine Empir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ited States.
- Ker, N. R. (1964). *Medieval Libraries of Great Britain: A List of Surviving Books (2nd ed.)*. London: Office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 Kestemont, M. K., Karsdorp, F., Bruijn, E., Driscoll, M., Kapitan, K. A., Ó Macháin, P.,

- Sawyer, D., Sleiderink, R., & Chao, A. (2022). Forgotten books: the application of unseen species models to the survival of culture. *Science*, 375(6582), 765-769.
- Koningsveld, P. S. van (1998). Greek manuscripts in the early Abbasid empire: fiction and facts about their origin, translation and destruction. *Bibliotheca Orientalis*, 3(4), 345-372.
- Lerner, R. trans. (1974). *Averroes on Plato's Republic*.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ockwood, D. P. (1918). Two thousand years of Latin translation from the Greek.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49, 115-129.
- Longworth, N. & Osborne, M. (2010). Six ages towards a learning region: a retrospective.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45(3), 368-401.
- Makhmudov, O. V. (2017). Translations carried out in the Spanish translation centers. *Asian Journal of Multidimensional Research*, 6(2), 5-20.
- Marcellinus, A. (1862). *Roman History*. Yonge, C. D, trans. (2009). London: H.G. Bohn.
- Maróth, M. (2003). The library of Sultan Bayezid II. In Jeremiàs, E. M. ed. *Irano-Turkic Cultural Contacts*. Piliscsaba: The Avicenna Institute of Middle Eastern Studies.
- Mavroudi, M. (2015). Translations from Greek into Latin and Arabic during the middle ages: searching for the classical tradition. *Speculum*, 90(1), 28-59.
- Nedelcu, Silviu-Constantin (2016). The libraries in the Byzantine empire (330-1453). *Annals of the University of Craiova for Journalism,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2, 74-92.
- Özgüdenli, O. G. (2005). Persian manuscripts I. In *Ottoman and Modern Turkish Libraries*. Available: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persian-manuscripts-1-ottoman>
- Pearce, S. J. (2007). *The Andalusí Literary and Intellectual Tradition: The Role of Arabic in Judah ibn Tibbon's Ethical Wil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Robinson, C. F. (2003). *Islamic histor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nciman, S. (1978). The ancient christian libraries. *Bulletin of the Association of British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Libraries*, 11, 6-14.
- van Zanden, J. L. (2013). Explaining the global distribution of book production before 1800. In Prak, Maarten and van Zanden, Jan Luiten, eds. *Technology, Skills and the Pre-Modern Economy in the East and the West*. Leiden: Brill, 323-340.
- Wiegand, W. A. & Davis, D. G. (2015). *Encyclopedia of Library History*, New York: Routledge.
- Wilson, N. G. (1967). The libraries of the Byzantine world.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8(1), 53-80.

